

<제 2 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가정과 교수 학습의 실제

윤 서 석

중앙대 명예교수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가정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판정과 생활의 과학적인 관리능력을 갖게하는 데 가정과 교육이 크게 기여해야하며 그러기 위하여 가정과교수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과교수 학습의 실체를 가정과교수 학습의 특성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고자 저의 생각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1. 가정과 교수·학습목표의 방향

가정과 교수·학습의 목표는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습디만 이것을 집약하면 가정생활의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수행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초보지식과 초보기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초집단이고 출생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이며 평생을 통하여 생활을 계속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은 가족의 생명력과 생활력을 재충진하고, 정서감각을 도야하고, 순수한 심성개발, 애정의 체험, 협동체의 체험, 인간관계의 원초적 체험 등을 갖게하는 터전입니다. 특히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현대가정의 갈등해소, 노령화에 따른 위험문제해소 등에 대비하려면 먼저 가정생활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의 복지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사람이 성장하고 도덕관을 배양하는 지면은 가정이므로 고도의 과학문명에서 조래되는 도덕관의 파행, 생태계의 도착, 문화가치의 혼돈문제 등의 해결도 가정생활에 의존하고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

장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정생활이 가정과교수 학습의 내용이므로 우리는 가정과교수 학습에서 학생에게 가정생활의 의미와 기능수행을 인식하게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간 가정학계에서 논의된 가정과 교육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나와 가족, 의·식·주생활의 경영·관리, 가정과 사회의 관계, 이 세 줄기를 중심으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가정생활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와 지식·기능을 갖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정학계에서 가정학의 목표에 관하여 수차례 걸쳐 논의한 바로는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의 여러문제를 가정과 사회의 관계성 아래에서 종합과학·응용과학·실천과학으로서 연구하고 교육하여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지향한 가정생활의 행복추구와 복지구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수·학습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하고 체험하고 있는 가정생활에서 가족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매일 반복 소비하는 자원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가족의 관계와 자원활용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질 때 가족이 심·신 공히 편안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가정의 문화가치와 가정생활에 담긴 과학적인 이치를 터득하게 할 수 있는 행동변화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정생활 요소는 주변사회의 조건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수·학습에서 여기에 필요

한 초보적인 사유력, 과학이론의 탐색능력 등을 습득하게 해야겠으며 이러한 학습지도 목표를 위하여 가정과 교사의 연구와 교육이념이 요망됩니다. 즉 가정생활의 구조와 기능을 해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축적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정의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이것이 학습의 동력으로 가능하고 나침판으로 작용하여 학습활동이 동요와 좌초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정교과의 선호성이나 영역별 이용도는 만족한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요인이 입시편중, 시설미비, 가정과 내용의 다기성 등에 근인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들 가정과 교수·학습이론 정립이 미흡한 것이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외 교수·학습이론이 쉽게 연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정과 교육에서는 이 영역의 연구가 더욱 절실한 과제이므로 여러분 전문인께서 공동연구로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목표설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감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정과 교수·학습이론에서 우선 정립할 문제는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 가정생활의 여러 요소에 내재하는 과학적인 이치의 추출, 생활을 개성있게 이루는 데 필요한 선정의 준거, 이러한 일련의 요소의 상호관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상화 하고 그 구성의 요체를 해명하고 순환체계의 이치를 밝히는 연구작업입니다. 다음으로 긴 역정에서 배양된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명창출에서 유도되는 문화변동 사이의 갈등이 가족상호간에서 이해와 충족감을 갖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있고, 한편 과학문명의 고도발달에서 비인간성과 가치혼돈의 문제 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현대의 가정생활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성을 가정과 교수·학습에서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족이 날마다 직면하는 크고 작은 범사이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생각과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질서를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 수용하여 가정과 교수·학습내용으로 엮어야만 가정과 학습은 신뢰와 기대가 두터워 질 것입니다.

2. 가정과 교수·학습방법의 특성

(1) 가정과 교수·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때 함께 있는 지역사회에서 얻은 정보, 학생이 평소 체험하는 사건 등이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윤리학에 기초하고 교육방법은 심리학에 기초한다고 말하였듯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려면 동기유발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이 심리적으로 공감적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공감적 상호관계를 갖는데 서로가 함께 경험한 사건과 함께 조사한 자료·정보 등이 효과적인 매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관한 학습을 전개하기에 앞서 TV프로의 한 줄거리, 신문에 게재된 사회면의 사건 등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도입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종류와 선택, 의류의 선택, 단원 등에 앞서 학생의 구매체험, 시장조사 등을 예비과제로 주고 발표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예비과제를 주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면 학습자의 긍지와 자아성숙을 돕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잘 짜여진 슬라이드 등이 좋은 매체임은 물론입니다만 극히 평범한 정보라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감대 형성에 더욱 효과있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주변의 평범한 정보를 학습의 도입단계로 이용할 때에는 교사 스스로가 먼저 단원과 연결하여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이 학습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데 적합하도록 계획되고 연구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습의 맥을 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가정과교수 학습과제는 실제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상(事象)을 가정생활의 구조적인 체계에 맞추어 조직하고 거기에 담긴 과학성을 발견하여 이해하고, 그 원리를 다른 사상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와 문화유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종합과학으로서 조직·구성하여 전문성을 분명하게 한다.

가정과 교수·학습의 과제는 가정생활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람과 자원에 관한 관계성이며, 그 요체는 생명력을 재생산하고 생활력을 재생산하는 일

에 관계되는 요소와 그 요소의 순환체계 및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입니다. 나아가 가정에서 수행되는 생활자원의 활용체계는 바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력·생활력의 재생산 과정이 국민의 생활력 재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편성과정과 법칙성을 이해하는 일도 가정과 교수·학습과제의 한 줄기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의 해결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인식하게 하는 일도 학습요소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은 자연과학이면서 사회과학인 특성이 있으며 그래서 가정학은 종합과학이고 가정과교육은 종합과학적인 관점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학습과제와 학습전개에서 분명하게하여 자연과학계열의 교과인 「과학」, 사회과학계열 교과인 「사회」와는 다른 전문성을 학생으로 하여금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의 학습내용은 가정생활의 여러 사상이므로 그 범위와 체계가 광범위하여 가정과 교수·학습에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전언 하였던듯이 생명력과 생활력의 재생산에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구조와 순환의 법칙성을 인식하게 하는 선에서 학습내용을 선정하는 일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정과 교수·학습의 대상범위는 선생님께서 공동연구로서 정립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한편 가정과 교수·학습과정의 기능·기술은 그 자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과학성을 인식하게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가정과학에 담긴 기능·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에 필요한 기술·기능에 한정시키고 문화가치로서의 기술·기능은 기술전문 교육에서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학습내용의 실용성 문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추종적인 실용성이 아니라 과학성의 인식과 과학성의 적용이란 본질로서 이해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실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추종하는 데 그친다면 가정과학습내용의 활용성에 한계가 커지고 학생과 학습내용 사이의 긴장도가 희박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3) 가정과 학습에서 욕망의 준거를 알게하고 습

득하는 지식·기능은 생활을 평가하고 개성을 신장하여 선택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 목표에서도 「... 생활을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습의 대상인 각기 가정은 모두 개성이 있고 한 가정의 가족원이라도 개성과 욕망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가족원들의 욕망을 충족되게 하는 일이 큰 명제의 하나이며 욕망의 충진이 생활력 재생산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이기적이어서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원의 상호욕망에는 준거가 있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 가정과 학습의 한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원의 욕망의 양태를 획일화 하자는 것은 결코 좋지 않으며, 또한 가족원의 한·두사람의 규범을 절대시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준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전언 하였던듯이 생활에 내재하는 섭리와 과학성을 발견하여 인식한다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 욕망의 준거를 인식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가족간에서 욕망을 상호 조정하고, 인격을 상호 존중하여, 개성을 인정하고 신장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과 학습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생활주변의 여러 양태를 볼 때 각기 상이한 것이라도, 그 선택이 과학적이고 섭리에 준거한 것이라면 그 가치를 발견하여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주변의 가정생활을 평가하고 그들이 후일에 꾸미는 가정은 명실공히 민주적이고 개성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생활체가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유리와 도덕관을 앞세워 주입하는 학습지도보다는 가계지출의 분배, 가족의 식사계획, 의복생활의 계획 등 집안일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 등을 학습과정에서 발표하게 하여 가정이란 공동체의 생활섭리, 생활자원의 생산과 분배의 과학적인 준거 등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터득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가정교과 여러 계열의 내용연구가 균형을 이

루게 한다.

그간 가정과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개의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가정학계의 한 문제로서 가족·어린이 발달, 의·식·주, 가정경제·가정관리의 여러 영역의 연구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입니다. 더우기 몇 개의 영역은 중등학교 학습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보고가 적은 형편이므로 전언하였듯이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조 해명을 하고, 순환과정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가정학 연구에서 미흡한 계열의 것은 인접한 그 영역의 연구나 실태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허구가 생겨서 총체적인 해명을 하기 어렵고 결과로 학습자에게 학습의 허구성을 느끼게 하고, 결과로 가정과학습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가정학계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정과 학습지도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연구에 앞장 서시면 좋겠습니다.

(5) 가정과 교수·학습은 시대적인 요청과 적응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요망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한편 역사적인 접근과 비교 고찰을 학습행동에 가미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이 개화기에 수예·재봉으로 시작하여 수예·재봉·가사로 확대되고 해방 이후 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것이 다시 한 때에는 가정일반이란 교과명으로 방황하다가 가정·가사로 편재되었으며 금년부터는 가정과 교과서가 「가정」 외에 「기술·가정」이 출간되어서 교장의 재량으로 임의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같이 여러 단계로 변경과정을 거치게 된 배경요인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기본요인은 사회변동에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장구한 농업사회체제에서 산업경제체제로 변경되면서 가정생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가족의 형태와 의식의 성향을 위시하여 의·식·주 관리요소에 대부분이 급격하게 사회화 되고, 국제교류가 급격하게 빈번하여지면서 가정생활의 순환체계가 더욱 다기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사회가 가정생활에 대하여

요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더욱 심대하여 졌습니다. 즉 가족의 심리적인 순화, 정서적인 안정, 가족의 활동력 재생산의 증대 문화신장의 저변적인 책임 등 범위를 가정에서 말아 주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가정과 교수·학습도 여기에 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정과 교수·학습의 의미가 다시 확인되는 한편 책임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요망증대에 응할 수 있을 만큼 교과서의 편재나 내용이 혁신되지 못하고, 한편 사회가 가정이나 가정과 교육에 요망하는 방향도 정립되지 못한채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우리들로서는 우선 현대사회에 응할 수 있는 한국 가정생활의 이상과 우리사회가 가정과 교육에 요망하는 주요 요소와 향배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에서 우리는 사회의 요망을 표출하고, 한편 우리사회는 가정과 교육의 의미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에 대한 연구자원을 촉구하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가족의 형태와 의식성향이나 의·식·주생활 양식 등이 시대에 따라 변동되는 이유와 미래를 위한 가치와 문화 창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역사적인 접근과 비교 고찰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이유를 깨닫게 하고, 횡적으로는 다른 고장의 것과 비교하여 자기 민족생활의 개성이 생긴 이유와 필요성을 이해한 다음 국제화사회에서 전통과 창조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어디에선가에서 굴러온 고아나 미아와 같은 가정생활이 개인·가정·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이 조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박물관 등을 견학하여 보고하게 하면 효과적이며 이러한 학습지도는 선생님의 소신과 이념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서 학습지도로 우리나라를 것입니다.

3. 가정과 교사 공동연구의 추진

가정과 교사의 공동연구기구를 조직하여서 학습매체의 공동개발과 상품화, 가정과 교수·학습이론의 정립, 차기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할 구체안 등을 적극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학습매체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 가정생활이 날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새로운 용구와 기기·가공식품 등이 날로 참신해지는데 가정과 학습지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편재된 교과에서만 의존하면 도저히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수·학습을 계속 존립시키려면 선생님들께서 분담하셔서 시급한 것 부터 공동연구하셔서 학습매체를 개발하시고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교수·학습에 관하여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선정하셔서 공동협의·공동연구로서 추진하시면 좋겠으며 이러한 연구과정에 연구재단이나 문교당국·교육위원당국의 적극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할 교육과정의 편성내용을 책임지고 연구해 주세요. 이제 가정을 남·녀 공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편성에서 「기술」하교의 문제가 가로 놓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정을 실업교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학습으로 「사회」가 있듯이 가정생활에 관한 교과는 「가정」으로서 일반교과화 해야 할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88.3.31 공포.

홍성운, 교공저, 教授學習의 過程, 1983, 교육출판사.

申尙玉, 家政教育研究의 접근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4권 2호.

鄭德姬, 家政學 過去·現在·未來와 家政學의 課題, 1988, 서울教育大學論集.

윤인경·신상옥·성화경, 가정·가사교육의 성격규명과 개선방향, 1988, 한국교육개발원주최.

HALL & PAOLUCCI, TEACHING HOME ECONOMICS, 1970, JOHN WILEY & SONS, INC.

林田泰彦, 家庭科 教育의理論, 1984, 青木教育叢書.

金泳謨, 現代社會問題論, 1986, 韓國福祉政策研究所.

權泰垓, 福祉社會에 기여하는 家庭.